

홍천실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통권 제38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자일스님 발행일 2017. 7. 1 주소 강원도 홍천군 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부부의 행복은 상대방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주관 올해의 부부상 김주철·권종석 씨



◇ 홍천군노인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올해의 부부상으로 김주철(79)·권종석(81) 부부를 선정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행복한 부부를 만
들어요.”

홍천군노인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올해의
부부상으로 선정한 김주철(79)·권종석(81) 부부
는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었다.

“남편이 북엇국과 된장찌개도 잘한다”고 칭찬했
다.

이 부부는 올해로 결혼 62년이다. 아내가 20살
이 되던 추석날 처음 남편과 선본 후 시집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부모님의 뜻에 따라 그해 12월

명지대를 졸업한 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30년
을 근무했고, 아내는 홍천 집에서 시조모, 시부
모를 모시며 슬하에 2남 1녀를 뒀다.

장남은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차남은 직장생활
을 하고 있으며,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 딸
덕분에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 부부는 살아오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많았다. 아내는 남편이 군대 전역 후 3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극진한 병간호를 했고,
남편은 아내가 발목 골수암 진단을 받아 지극정
성으로 도와 기적에 가깝게 회복되고 있다. 요즘
은 서로에게 일 좀 그만 하라며 사랑이 담긴 말
싸움을 자주 한다고 했다.

남편은 노인복지관 서예교실에서 붓글씨를 쓰
고 있고, 아내는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
소하는 등 일상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함께 참여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말벗을
해주며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 상담을 하면서 남
편과 아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
을 피부로 느껴 부부의 애뜻한 정이 깊어지고 있
다. 부부는 착실한 가톨릭 신자로 가족과 이웃들
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주면서 생의 에너지를 얻는다”며 “영광스러운 상
을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박영권 기자

결혼 62년 아직도 사랑 나누며 이웃돕기에 앞장 서로 병마와 싸울 때 극진히 간호... 최고의 믿음

이 부부의 자택을 방문한 날, 남편인 김주철
씨는 발목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있는 아내를 대
신해 손수 마를 갈아 대접했다. 이를 본 아내는

결혼했다. 남편은 아내의 첫인상에 대해 무척 예
뻤다고 했다.

남편은 홍천읍 높은터에서 태어나 홍천농고,

◆ 홍천군노인복지관 7월 행사일정

일 시	장 소	내 용
2017.07.07.(금) 10:30~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핫한 2학기 반장·강사 간담회
2017.07.21.(금) 11:30~	홍천군노인복지관	건강한 여름나기 중복 행사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NEWS

03 - 귀농·귀촌인 이야기

04 - 경로당 탐방

05 - 다문화가정이야기

06 - 유적지/전설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08 - 기자칼럼

- 인생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 천 군 노 인 복 지 관

예쁜 글씨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



◇ 홍천군노인복지관 캘리그래피반(반장 최경자·66)

사람마다 얼굴모습과 개성이 다르듯이 아름다운 나만의 글씨체를 갖고 싶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캘리그래피반(반장 최경자·66)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

면의 표출이라 자유롭게 쓰다보면 자연히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글씨 속에 마음이 실려 있다.

예쁜 글씨를 쓰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평정심

붓과 마음의 상호교감 시(詩)와 환상의 조합 예쁜 글씨는 내면의 품격 반영... 발표회 계획

켜주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1시 50분까지 마종운 강사의 지도로 자신만의 독특한 글씨를 연마하고 있다.

최 반장은 "내 인생의 삶이 담긴 글씨체를 만들어 내고 싶다"며 "글씨는 마음의 여행이며 내

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예쁘게 가져야 나만의 독특한 글씨를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힐링된다.

언젠가 내가 지은 시에 예쁜 그림과 나만의 글씨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오늘도 마음의 꽃길을 걸으며 생동감 있는 글씨 산책을 한다.

장혜숙(62) 씨는 "겉핥기 없이 나만의 글씨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라고 했다. 행복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유로움! 만약 마음속에 근심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근심걱정은 사라진다. 화려하지 않고 마음의 순수함을 담은 감성어린 글씨를 쓰고자 한다. 마음과 붓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시 한편을 써 내려갔다.

유명애(70) 씨는 요즘 캘리그래피에 매료된 후 인생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다. 그녀는 "예쁜 글씨를 쓴다는 건 몸과 마음의 깨끗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이죠. 캘리그래피는 건강하고 신선한 세포의 재생산이며 휴화산에서 활화산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며 "곧 발표회도 갖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마 강사는 "캘리그래피는 시·서·화 삼위일체의 내면의 정신적 품격을 담아내는 복합예술이다. 아날로그적인 느낌과 맛있는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독특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의 한 장르이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자기만의 개성 있는 작품으로 존재할 것이다"고 했다.

마 강사는 캘리그래피는 물론 산수화와 사군자까지 아우르는 행위예술가로서 국전 심사위원 경력을 지닌 종합예술가이다.

조정철 기자



홍천군노인복지관 '쿠키제조판매업' 운영



홍천군노인복지관 별관에 쿠키제조판매실이 운영된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명을 참여시켜 7월부터 개설된다. 월 30시간 근무하면 20만원이 지급된다.

홍천군 기억키움학교 생신잔치



홍천군노인복지관 기억키움학교는 6월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생신잔치를 개최했다.

홍천군 시니어예술단 합주공연



홍천군 시니어 예술단이 2017년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 행사에서 합주공연을 진행했다.

귀농·귀촌인 이야기(7) 선대영·이영옥 씨 부부

한국전력 퇴직 후 양봉 4년 만에 첫 수익



◇ 선대영 (66) 씨는 2012년 퇴직 후 귀농하여 홍천과 인연을 맺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양봉을 했다. 그동안 까 마득하게 잊고 살아왔는데 그 영향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귀농해 양봉업을 선택한 것 같다.”

홍천 동면 속초리로 귀농한 선대영(66) 씨는 양봉업은 중노동이라며 양봉 4년차의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퇴직하기 전 한전 홍천지사에서 1년 근무한 것이 계기가 되어 홍천으로 귀농했다. 2010년 집을 지어 주말농장처럼 텃밭을 가꿨다. 2012년 3월 퇴직 후 주변 농지 1,500평을 임대해 감자, 고추, 옥수수 등을 경작했으나 농사 경험이 없어서인지 수익이 없어 중도 포기했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중 양봉에 빠졌다. 그러나 막상 양봉업을 해보니 너무 힘들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밀원이 없어 원주에서 벌통 50개를 관리하고 있다.

그는 “벌은 말벌의 침입, 진드기와 응애 방지

등 세심히 보살펴야 한다”며 “겨울을 나는 벌에 먹이로 설탕을 주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주변 환경을 청소하고, 새로운 꿀을 받아 상품화한다”고 했다. 지난해 7드럼(2,100kg)을 생산했다. 올해가 양봉 4년차인데 손익분기점이 지나 수익이 나고 있다. 올해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선 씨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아내 이영옥(64)씨는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텃밭이나 가꾸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며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그동안의 속앓이를 털어냈다. 이제는 많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 씨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강하고 작은 농업인)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으로 유통과 판매처를 늘리려는 계획이다. 유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신뢰라고 한다. 그가 하니원(강원도가 지정한 양봉브랜드)에서 검사해 봉인한 정제된 상품을 보여줬다.

강원도에서는 중금속과 불순물을 제거한 벌꿀 상품을 양봉협회의 검사증과 고유번호까지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고 있다. 검사필증이 붙은 상품은 생산자가 내용물을 바꿀 수 없다. 그만큼 엄격하게 상품을 관리하고 있다.

그는 홍천군 귀농귀촌 연합회의 동면 지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귀농인의 지역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양봉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밀원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양봉체험 농장을 만들어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곳을 만들고 싶다. 곳곳에서 벌목을 하고 있는데 조림을 할 때 밀원에 적합한 나무를 심으면 된다. 국유림을 벌목한 후 조성해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 임사동기들을 초청해 양봉에 대해 보여줬는데 양봉에 호감을 느껴 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그는 대형 밀원을 만들어 대형 양봉단지를 조성해 체험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원주서 벌통 50개 관리 밀원 찾는 것 가장 중요 꿀 생산 엄격히 관리 ‘양봉체험 농장’ 건립이 꿈

그는 “지금의 농촌은 도시사람들을 유치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며 벌꿀이 지닌 영양소와 효능에 자신을 갖고 있다. 꿀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식품으로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발육촉진, 위장 보호, 심장근육 강화 등에 도움이 된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꿀을 수확하기 위해선 벌을 관리해야 하고 수시로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등 엄청난 고충을 겪어야 한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 있어야 소비자가 신뢰하는 꿀을 생산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경로당 탐방시리즈 (37) 두촌면 역내리 경로당

경로당 모범운영 홍천군노인회장상 수상



◇ 두촌면 역내리 경로당(회장 김경복(75)·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는 국도44호선 변에 자리 잡고 있는 쉼터의 고장이다. 힘이 들면 쉬어가는 곳이다.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인 가리산과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최근에 건립

우애도 깊다. 그래서 김경복(75) 회장이 웃어른을 섬기는 자세로 회원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 가고 있다. 회원은 74명(남자 32명, 여자 42명)으로 구성됐다.

농산물을 구입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준데 이어 지난달 20일 경로당회원을 초청했다.

마을주민들도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윤배(66) 이장과 이선아

강 체크, 한방내과 등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연2회 실시하고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농한기 때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2009년 3월, 제4회 홍천군 건강체조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으며, 경로당 모범운영으로 지난 2014년 홍천군노인회장상을 수상했다. 또 2015년 11월 꿈에 그린 전원도시 창조마을 우수사례로 우수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농번기철이라 회원들이 농사일에 바빠 경로당이 다소 한가하다. 회원 12명(남자 4명, 여자 8명)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혈압기와 당뇨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태수 기자



의정부 송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농산물 직거래 장수어르신 많고 우애 깊어 ‘훈훈’ 혈압기 설치 시급

된 산악형 레포츠시설들이 들어섰다. 또 숙박시설인 가림밸리가 있어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역내리 경로당은 초대회장인 변삼준(95), 신완수(92), 박현진(97)씨 등 장수어르신들이 많고, 회원들 간의

2015년 4월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도농간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으며, 연간 2-3회 체육대회를 개최해 양 단체의 친목과 정을 나누고 있다. 지난 달 체육대회 때 송산2동 주민자치위원 20명이 참석해 역내리에서 생산된

(67) 부녀회장이 마을의 대소사를 하면서도 경로당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전체주민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 강원대에서 응급처치 요령, 건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김경복	75	농업
부회장	박정일	77	농업
부회장	임한춘	83	주부
감사	최돈석	72	상업
총무	고복만	74	농업

☎ 033-435-7894

고시조

재너머 성권농집에 - 정철(1536-1594)·조선 중기 정치가, 문인

재너머 성권농집에 술익었다 말 어제듣고
누운소 발로박차 언치농아 놀러타고
아이야 네권농계시나 정좌수 왔다 하여라

·성권농(成勸農): 권농은 조선시대 지방에서 농사를 장려하던 직책 또는 사람. 여기서는 성훈(成渾)을 말한다.
·박차: 발길로 뺨다 참 / 언치: 말이나 소의 안장
·정좌수: 좌수는 조선시대 지방 향정의 우두머리. 송강 정철 자신을 이름
·해설: 술과 벗이 있으니 흥취가 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박차’라는 어휘에 집약적으로 나타냈다. 벗의 집에 가는 과정을 순 우리말로 경쾌하게 묘사하고, 화자의 풍류와 농촌의 토속을 조화시켜 그렸다. 호방한 화자의 풍류가 엿보인다.
조정철 기자

사자성어

餘生之樂(여생지락)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의 뜻. 노년의 즐거움은 단순 소박해야하고 빈 듯이 소탈하고 너그럽고 정다워야 한다. 자연을 벗하며 겸손을 배우고 따뜻한 눈으로 주위를 바라볼 때 정다운 사랑의 문이 열리고 황혼도 아름다울 것이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남은 인생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다.

조정철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36) 홍천읍 미란다 마리린 (40) 씨

직장생활 성실히 근무 회사대표 표창장 수상

“한국사람 착하고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한국인과 결혼하면 괜찮다.”

필리핀에서 홍천읍 하오안리로 시집온 미란다 마리린(40) 씨는 원주로 먼저 시집와서 살고 있는 이웃 언니의 이런 말을 듣고 한국으로 시집왔다고 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아버지 미란다 요셉(77) 씨와 어머니 헤로니마 말레리오(74) 씨의 3남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모두 사탕수수가공회사(센트라이)에서 일했다. 그녀가 초등학교 졸업 때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간호할 수밖에 없어 상급학교 진학을 못했다. 어머니는 54세 때 별세했다. 그 후 아버지와 사탕수수가공회사에서 일했다.

1999년 12월 10일 남편 김광윤(52) 씨를 만났다.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가느냐?”고 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 그해 12월 16일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2000년 2월 7일 한국에 왔다. 일반적으로 통일교회에서 4주 이상 머물며 한국문화를 익히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서두름으로 2주 만에 홍천읍 하오안리 시택으로 왔다.

남편은 아버지 김용수(87) 씨와 어머니 이상순(80) 씨의 3남 1녀 중 셋째 아들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제과기술을 익혀 읍내 나드리제과점에서 7년을 근무했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시아버지는 4,600㎡의 땅에 농사를 짓고 시어머니는 일이 생기면 돈벌이를 한다. 시어머니는 공부를 못시킨 막내아들에게 더 마음이 쓰여 2000년 6월 10일 홍천읍내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다음해 첫 아들 병규(18)를 낳고 이어 둘째 아들 동규(15)를 낳았다. 시누이 같은 딸을 낳고 싶어 셋째를 가졌으나 또 아들(남규.13)이었다. 결국 딸은 포기했다.

남편의 직장이 춘천으로 옮겨져 아들을 데리고 살림을 냈지만 다시 인제 현리로 옮겨갔고 또 다시



◇ 미란다 마리린(40) 씨가 밝게 웃으며 두 아들과 함께 있다.

품 생산부문에서 9년 동안 근무하다보니 어느새 숙련공이 됐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자주 나가고 들어움을 반복했지만 꼭 참고 장기 근속했다. 시어머니가 힘들게 무리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급여를 올리려고 야근이나 휴일근무할 일거리가 있으면 자청해서 일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숙달돼서 괜찮다.’고 했다. 그 덕분에 2012년 11월 5일 ‘업무에 충실하게 회사에 기여한 공로’로 홍천푸드벨리 대표 표창을 받았다.

집에서 쉬는 날은 시부모가 좋아하는 갈국수를 끓여드리고 과일 커피를 대접하는 등 시부모에 대한 공경이 남다르다.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출근하려고 하면 커피 마시고 가라고 며느리를 챙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

시부모 극진히 공경, 시부모 며느리 사랑 극진 남편 사망 후 “아들과 함께 곳곳이 살겠다” 각오

원주로 이직했다. 그녀는 남편의 직장 때문에 두 세 번 이사를 다녔는데 자녀가 전학을 자주하다 보니 친구가 없는 등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아 자녀들과 시택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원주로 출퇴근했다.

시아머니의 주선으로 마을에 필리핀 신부 4명을 맞이했다. 때문에 자녀들도 같은 무렵에 낳아 청소해 놓고 일 끝나고 해질녘이면 4명의 필리핀 새댁들이 유모차에 아기들을 태우고 개울가 그늘에 모여 고향과 타향살이 등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시아머니는 며느리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를 팬에 굽고 돼지고기를 구어서 주는 등 세심하게 보살폈다.

2001년 12월에 남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18일간 친정을 다녀왔다. 큰아들이 예쁘게 생겨 친정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는데 아기가 낯을 가려 울어서 아들이 큰 다음에나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2008년 막내아들을 키워 유치원에 보낸 이후 직장을 다녔다. 홍천읍 상오안리에 있는 산돌식

이며 딸보다 더 아껴 시부모의 며느리 사랑이 극진하다.

가끔 마음이 맞는 필리핀에서 온 친구들의 생일에는 20여 명이 모여 마카로니, 잡채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뜻 다한 고향 이야기들을 한다.

지난해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왔고 모처럼 시간을 내서 남편과 함께 동해안을 1박2일 다녀왔다. 그녀는 회를 잘 먹는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6일 남편이 급성신부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그렇지만 평소 내색을 잘하지 않는 그녀는 변함없이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시부모를 모시며 자식들과 함께 곳곳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 열심히 별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싶다”고 했다.



이옥희 기자

유적지 탐방(17) 화촌면 야시대리 자유수호 희생자 추모비

‘북한 무장공비의 악랄한 만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13분 영령이시여. 삼과 팽이로 마을을 지킨 대한청년단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자유 평화를 이룩하였으니. 장하구나. 그대들의 충정. 이 나라 이 고장의 영광이여라... 이제 고이 잠드소서!’

오지 않는 아들을 찾아 산에 오른 마을 주민이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날이 저물어 마을로 내려온 공비 중 2명을 사살하자 공비들은 혈안이 되어 마을 경계와 연락 임무를 맡은 청년단원 중 10명을 참수하고 산으로 도주했다. 공비들은 마을 주민과 청년단원들



◇ 화촌면 야시대리 자유수호 희생자 추모비

1949년 무장공비 침투 청년단원 13명 희생 독지가 추모비 건립 후손이 반환 요구 씹쓸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가마덕산 아래 마을 길 옆에 쓸쓸히 서있는 ‘야시대리 자유수호 희생자 추모비’에 새겨진 추모사 일부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 발발 전까지 남북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1949년 9월 6일 새벽 야시대리에 북한 무장공비 70여 명이 침투해왔다. 화전발에 갔다 돌아

을 닦치는 대로 대검으로 무참히 살해하면서 도주했다.

이날의 참화로 청년단원 13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다가 대부분 사망하고 현재는 허용봉(94) 씨만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홍천군과 홍천군자유총연맹은 이날 참화로 희

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후세에 알리기 위해 1999년 추모비를 세워 매년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그러나 추모비는 마을 독지가가 비석 건립을 부담하고 대지를 회사하여 현재의 추모공원을 조성하였으나 그 후손들이 부지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 철거해야 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박세구 기자



전설(17) 구룡령 두 여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내면 창촌리에 김용자와 최용순이라는 두 여인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여인은 산으로 나물을 채취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 창촌리 깊은 산속은 곰치와 참나물 고사리 더덕 등이 많다는 소문으로 6월 초순쯤 접어들면서 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두 여인은 약속대로 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으름장을 놓았다. “나물을 캐러 산속에 오는 여자가 무슨 돈이나 금불이가 있겠어요?” 겁에 질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그 산적들은 우리말을 들으면 해치진 않겠다며 따라 오라고 했다. “사람 살려요” 악을 쓰며 붙잡아 가려던 산적의 팔을 물어뜯으며 반항을 했다. 산적은 “이 재수 없는 것들이 걸렸다”며 마구 폭행을 했다. 두 여

산나물 채취 중 산적에 잡혔다가 선비가 구출

산속으로 들어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곰치와 참나물이 많았다. 산속 깊숙이 골짜기를 따라 산나물을 채취하는 순간 난데없이 두 팔이나 될 성 짙은 큰 구렁이가 나타났다. 두 여인은 너무 놀라 “사람 살려!” 소리치며 나물 보따리도 내동댕이치고 산등으로 줄행랑 쳤다. 두 여인은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찾았다. 다행히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는 능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정신없이 갔을까 잠깐 숨을 돌리려고 멈추었는데 우락부락한 수염이 턱수룩한 산적 둘이 나타나 몸에 가진 것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인은 기절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린 두 여인은 마구 소리를 쳤다. “살려 줘요” 그 소리에 산삼을 캐러 다니던 심마니가 비명소리를 듣고 왔다. 하지만 그 심마니는 그 여인들이 산적에게 죽을 뻔 했다는 얘기를 듣고 겁에 질려 그대로 달아나고 말았다.

두 여인이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당나귀에 봇짐을 실은 두 선비를 만났다. 두 선비는 비명소리를 듣고 왔으며 두 여인의 전후 사정을 듣고 두 여인을 당나귀에 태워 창촌리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다.



◇ 홍천군 내면 창촌리

두 여인은 자신들이 산적에게 폭행을 당해 죽을 뻔 했는데 선비님들 덕택에 살아 왔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들에게 고마움에 저녁식사와 잠자리까지 재우는 등 후한 대접을 한 후 보냈다. 그 후 두 선비는 과거에 합격해 강원도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 두 여인이 산적을 만난 산은 백두대간으로 산천이 수려하고 경관이 좋은 구룡령이었다. 구룡령은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광명 기자



우리 직장 칭찬 릴레이 (38)

홍천노인전문요양원

전국노인복지시설 종합평가 A등급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에 있는 홍천노인전문요양원(원장 박준교)은 2005년 10월 개원했다. 박준교 원장은 장애아들(지적장애 1급)의 재활을 위해 오랜 기간 도우미 역할을 하며 장애를 극복시키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42세 되던 해 직장(병원 원무과장)을 사직하고 1996년 홍천 화촌면 굴운리에 무료양로원인 '작은효도원'을 개원해 현재 30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2년 5월 사회복지법인 성효원 설립 후 2005년 10월 같은 장소에 홍천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해서 현재 94명의 어르신이 입소했고, 직원 54명이 근무하는 홍천지역 최대 규모의 요양원으로 성장했다.

이용병원은 홍천아산병원, 강원대병원, 한림대병원, 원주기독병원 등이며, 월2회 의사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2015년에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전국노인복지시설 종합평가에서 A등급(전국 15% 이내)을 받았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다.

안영자 요양보호사 조장이 박덕희(58) 사무국장을 칭찬했다. 2007년 10월 입사해서 시설의 경쟁력은 '직원의 생각' 속에 있다는 일념으로 직원교육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에 주력했다. 승진, 정규직 전환, 행사일정 등 중요사항을 직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서 근무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컴퓨터를 배우게 하고, 운전면허도 취득(전 직원의 80%)토록 하고, 형식적인 서류업무는 과감히 축소했다.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위해 동아리 활동(탁구, 볼링, 당구, 산악회, 통기타교실 등)을 적극 지원해서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직원 상호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회의시간에 직원들 앞에서 기타를 치며 애창곡을 열창하

는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다.

박 사무국장은 장동심(50) 영양과장을 칭찬했다. 2008년 10월에 입사한 장 과장은 요양원의 고참 직원으로 항상 밝은 모습과 몸에 밴 친절로 밝고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주방에서 근무하는

확히 맞춰 '족집게 팀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어르신 개개인의 질병이나 복용하고 있는 약의 효능 및 부작용을 숙지하여 최상의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떡하면 한분의 건강이라도 더 챙기고 관리해 드릴까 보호자와 상

담하고, 의료진과 상의하고, 직원들과 단합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한다.

어느 보호자는 김 팀장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김 팀장은 안영자(57) 요양보호사 조장을 칭찬했다. 생활관의 파수꾼인 안 조장은 2006년 2월 입사 후 차분한 성품과 폭넓은 리더십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동료 직원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주어 지역주민들에게 노인복지

시설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직원과 요양보호사간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하며, 후임 요양보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개원 초기 부족한 어르신케어기술 함양을 위해 케어이론과 식사 수발, 이동, 기저귀 교환 등의 실습시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케어의 표준안을 정착시켰다. 헌신적이고 친절한 모습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며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입소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등 '시설의 마당발'로 불린다. 오랜 기간 어르신을 모신 경험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습성과 성격에 잘 대응하며 보살펴 드리 어르신 및 보호자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직원들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항상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정규 기자



박덕희 사무국장



장동심 영양과장



김명복 간호팀장



안영자 요양보호사 조장

박덕희 사무국장 - 직원 애로사항 해결. 동아리 활동지원 등 사기진작

장동심 영양과장 - 항상 밝은 모습 다른 업무까지 통달... 직원평가 1위

김명복 간호팀장 - 어르신 표정만 보고 건강상태 맞추는 족집게 간호

안영자 요양보호사 조장 - 차분한 성격. 리더십 어르신 정서안정 기여

조리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챙겨주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실시하는 어르신 생일잔치를 정성껏 준비한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다양한 식단(일반식, 당뇨식, 연식)과 메뉴로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인기가 최고다. 한분의 어르신 식탁도 소홀하지 않고, 때로는 어르신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해드려서 감동을 준다. 업무적으로는 투철한 프로정신으로 본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통달해서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힘들어할 때 말없이 도와주는 따스한 마음씨를 가졌다. 2016년도 직원 교차평가에서 54명 중 1위를 차지했다.

장 과장은 김명복(61) 간호팀장을 칭찬했다. 김 팀장은 육군 제11사단에서 부사관으로 34년 동안 근무 후 전역하여 홍천에 정착했다. 2013년 5월 입사해서 간호업무는 물론 어르신 입소 시 맥에서 모셔오는 일, 무연고자의 사망 시 장례업무 처리까지 하는 풀서비스(Full-Service)는 직원 및 보호자들에게 정평이 나있다. 오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표정만으로 건강상태와 원하는 것을 정



기자칼럼**조 정 철**

홍천실버신문 기자

어머니의 강이라는
갠지스강을 따라 인
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무척 궁

금해 인도 북부지역에 위치한 힌
두교의 성지인 바라나시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다.

내 머릿속에 있던 바라나시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 인도의
모든 수행자들이 모여 정신의 때
를 씻는 곳이었다.

강 건너 동쪽은 허허벌판에서
소들이 노닐고 있고 서쪽에는 줄
지어 있는 가트(갠지스강의 총계)
와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

어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목욕도 하고
빨래를 하고 시신을 태운다.

힌두교도에게는 갠지스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성지로 알
려져 있다. 성스러운 물에 몸을 씻
으면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이곳
에서 죽어 화장한 재를 강물에 띄
우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믿는다. 이것은 힌두교도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뜻한다. 갠지스의

인 것이다. 가진 돈만큼 태워져서
다 타지도 못한 시신이 그냥 갠지
스강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 돈이 없으면 완전히 재
가 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죽기 전에 바
라나시로 와서 빨감 살 돈을 구걸
하다 죽어 신성한 갠지스강에 뿌
려진다면 이만큼 행복한 죽음은
없다고 생각하는 인도인들이다.

삶과 죽음의 길목에 선 그들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카르마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은 그로
인한 결과를 초래하며 카르마에
따라서 윤회는 필연적이다. 전생
의 업이 현세의 결과로 나타나며
현세의 행동은 내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

힌두교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
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다른 시작
을 향한 관문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음
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
지 생각의 실타래를
풀었다 감았다 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는 것일까? 인생에서 나그넷길이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과 성찰이 아닐까? 인도는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스승이었다. 이곳
바라나시의 갠지스 강변에서는 생
사(生死)가 전혀 낯설지 않게 마
주하고 있다. 갠지스강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무심히
흐른다.

나마스떼~

죽기 위해 가는 도시, 인도 바라나시

기슭에 앉아 이 도시에서 벌어지
는 삶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인간
이라는 존재의 심연에 대해서 사
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트에는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그칠 새가 없다. 타고 남은 재와
뼈는 강물에 흘러 보낸다. 뒤편 오
래된 건물에는 임종을 맞기 위한
사람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약간의 지
참금이 들어있다. 그것은 장례비

매일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을 보
며 무슨 생각을 할까. 죽음의 문턱
에서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사
람들은 인도인밖에 없을 것이다.

힌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시 태어나는 존재인 것이다. 즉 환
생(윤회)을 믿는 것이다. 카스트
가 인도사회를 형성하는 큰 기둥
이라면 카르마는 인도인의 의식을
형성하는 또 다른 기둥이다. 자기
자신의 행동만이 자신의 운명을

인생칼럼**무거운 짐 내려놓고 살아요****석 도 익**
홍천문인협회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 그러
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
리니...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예수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했다. 우리는 늘
몸도 마음도 무겁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 누
가 무거운 짐을 지워주어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여 마음마저 무겁게 짓눌러 주
는 것도 아니다. 이젠 순전히 내가 만들고 스스로
주워서 짊어지고 가는 내 짐이고 그것의 무게다.

해마다 한 살씩 먹어야 하는 나이도 마음에 무
거움을 더해가는 느낌이고 떨어지는 기력은 추위
를 타서 더 끼워 입어야 하는 옷은 몸을 둔하고 무
겁게 만든다.

내가 짊어진 삶에 짐의 무게를 덜고자 내려놓아
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늙어가는 자식들인

데도 문명사회생활 사고가 걱정되고, 치열한 생
존경쟁이 근심되는 마음은 더 무거워지지만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어떻게 하
든 아끼고 모아 두었다 자식들 잘살 수 있도록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더해만 간다.

가난했던 지난날을 힘겹게 살아왔기에 무엇이
든지 아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신문에 끼어 오는 광고전단지도 이면지 공백이
있으면 모아두었다 메모지로 활용하였고 공문서
도 폐기하지 않고 두었다가 이면지로 활용하여야
했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니었으니 몸과 마
음이 이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직은 입을만한 옷
이라고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기만 하여 옷장을 가
득히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도 고치면 될 것
같은 가전제품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 놓다보니 집
안은 고물상이 되어가고, 쓰지 않는 그릇이나 나
무 조각 철 조각 심지어 나사못 같은 것이라도 언
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어
집안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애지중지 모아놓아도 이것들을 재활용
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고 막상 필요한 일이 생겨
서 찾아보아도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도 잘 안 나

고 워낙 많이 모아 놓다보니 어느 구석에 박혀 있
는지 찾지 못하고 결국은 또 새것으로 사다가 써
야하면서도 버리지는 못한다.

껌 한조각도 씹다가 단물이 빠지면 뱉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무의식중
에 입 볼이 아프더라도 질경질경 씹고 있는 우유
부단한 것이 사람이기도 하다.

이제 짐을 내려놓아 무게를 줄이자. 잔뜩 지고
있는 짐은 실상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들인지도 모른다. 소비가 미덕인 시
대다.

자식들 걱정한다고 더 잘된다면 몰라도, 더 많
이 물려준다고 자식들 인생이 잘된다면 몰라도,
어르신들도 이렇게 살아왔듯이 자식들도 스스로
홀로서서 그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해야 마땅
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나이도 하나 둘 내려
놓고 쫑게 살아야 한다.

필자는 젊은 시절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욕
심은 적어질 거라고 믿었고, 늙어지면 질투도 없
어질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어리석었
던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